

금호, 혹독한 시련 딛고 힘차게 일어서기를...



이흥재의
세상만사

주필

또 한 해가 간다. "마지막 달력이 남으면/ 아이들은 들뜨고/ 어른들은 한숨짓는다." 어느 시인이 노래했듯이 이맘때면 늘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 걱정거리가 없는 아이들아 마냥 들뜨겠지만, 어른들은 이룬 것 하나 없이 속절없이 가 버린 야속한 세월을 타하며 한숨짓는 것이다.

올해는 더욱 그랬다. 갑자기 우리 인간 사회를 급습한 한파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한순간에 우리의 일상은 감옥으로 변하고 말았다. 몸도 마음도 다 갇혔다. 더욱 안 좋은 것은, 한 줌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달리는 세월의 강에/ 흘러보낼 것은 보내고/ 잊을 것은 잊어야지" 하면서도, 그제 그리 쉽지 않음을 깨닫는다. 그 순간 다시 마음은 한없이 울적해진다. 긴 어둠의 터널, 사방은 캄캄한데 바늘구멍만 한 작은 빛줄기 하나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땐 음악을 듣는 것이 제격이다. 글을 쓰다 말고 킬리 몇 번으로 불꽃이 함창단을 불러낸

다. 평소 음악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면서 괜히 유난을 떨어 보는 거다. 그들 러시아 사람들의 목소리로 우리 가곡 '보리밭'을 듣는다. "옛 생각이 외로워/ 휘파람 불면/ 고운 노래 귓가에 들려온다" 참으로 멋진 화음이다. 이내 울적한 마음이 사라진다. 감미롭다.

노래를 들으며 곧장 어떤 추억 속에 빠져든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촌놈이 난생처음 서울 땅을 밟은 적이 있었다. 그때 타고 간 버스가 광주역까지 왔는지 광주고속이었는데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지만 서울에서 술 한잔 하다 보니 통금시간이 지나고, 순경들에게 쫓기다 화물 트럭 밑으로 숨어들어 꼬박 날을 샀던 기억은 아직도 선명하다. (새벽 4시 통금 해제 사이렌이 울린 뒤에야 트럭 밑을 기어 나오면서 나는 헤르만 헤세의 소설 제목 '차륜(車輪) 밑에서'를 떠올리기도 했다.)

호남 유일 30대 기업이었던만

아, 내가 너무 감상에 젖었다? 잠시 추억에 잠겨 깜빡할 뻔했는데, 이제야 오늘 쓰려는 칼럼의 주제가 생각난다. '금호아시아나 가족들에게 보내는 위로의 메시지'다. 처음은 갈 때 타고 갔던 그 버스 회사가 바로 오늘날 금호의 모태였으니, 아마도 아련한 옛 추억이 이미 노후화된 내 뇌속의 해마를 건드린 모양이다.

금호를 생각하면 먼저 애잔한 마음이 앞선다.

한때 하늘 높이 줄기를 뻗어 울리며 위업을 뽐내던 시절도 있었건만, 지금은 무성했던 잎을 다 떨근 앙상한 겨울나무처럼 쇠락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호남 유일의 30대 기업이래는 위상마저도 지킬 수 없게 됐다. 참으로 딱한 일이다. 경영 위기를 맞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어쩔 수 없이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매각기로 했으니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

잠시 금호의 역사를 되돌아본다. 익히 알다시피 택시 두 대로 시작한 박인천 창업주는 이후 광주주요역을 설립함으로써 버스 운수업계에 뛰어 들었다. 그리고 1970년대 호남고속도로 개통으로 급성장하게 된다. 당시 '그레이하운드' 등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무조건 광주고속을 뺏던 호남 사람들. 그 열렬한 성원에 힘입어 금호는 난적 중앙고속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날개를 달게 된다. 기존 삼양타이어에 이어 70년대엔 건설업과 석유 화학 사업에도 진출하고, 종합 무역상사인 금호실업을 만들어 그룹의 기초를 다진다.

1984년 박인천 창업주 타계 이후 금호는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경영권을 행사하는 독특한 후계 방식으로 세인들의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장남 박성용 회장은 한때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후원자로도 유명했다. 둘째 박정구 회장은 애항심이 강했으며, 아주 선이 굵은 경영인으로 세인의 존경을 받았다. 셋째 박삼구 회장은 치밀하고 이성적인 경영인이었다.

금호는 1988년 제2민항사로 선정되면서 대기업으로 본격 도약하는 전환점을 맞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에 맞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서비스로 집요하게 치고 나갔다. 그러나 1996년, 그룹을 이어받은 6년 동안 탄탄하게 이끌었던 박정구 회장이 먼저 세상을 뜨고 만다. 이어 2002년 4대 박삼구 회장이 취임했으며, 2년 뒤에는 그룹 이름을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 변경한다.

과거 명성 언제 다시 찾으려나

이후 2006년 대우건설을 인수하고 2008년에는 대한통운까지 인수함으로써 한진그룹을 제치고 재계 7위까지 뛰어오르기도 한다. 그러나 손풍에 돛을 단 듯 성장을 거듭하던 금호는 이때부터 내리막길로 접어들었다. 경쟁에서는 이겼지만 승리를 위해 과도한 비용을 치르면서 오히려 위험에 빠지게 되는 '승자의 저주' 상황이 된 것이다. 여기에는 경영주의 오만(驕)과 더불어 당시 불어닥친 미국발 금융위기 또한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최근엔 얽힌 데 맞춘 것으로 코로나19가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 결국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백방으로 꾸미고 살려 보려 했던 박삼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활용해 금호고속에 자금을 부당 지원했다는 사실로 인해 고발당한 상황이다. 계열사 자금 지원을

받은 금호고속은 이후 경영 여건이 많이 개선됐지만, 이 일로 향후 법적인 심판까지 받게 되는 판 회장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마음은 안타깝고 짝 후속배에 진 빚을 갚기 위해 그동안 슬한 사회 공헌을 해 왔다. 수많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장학 사업과 문화체육 후원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그나마 금호그룹이라도 하나 있어 전라도의 긍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말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금호는 호남의 자존심이었으며 호남인의 긍지였다. 그랬던 금호였기에 금호의 쇠락을 보는 지역민들의 상실감과 안타까움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또 한 해가 간다. 과연 금호는 '침적산중' 위기를 극복하고 과거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 이제 금호고속과 금호산업 딱 두 개만 남은 상황. 돌고 돌아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지만 호남 사람들은 모두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리라는 생각이다. 금호가 제2의 창업으로 다시 태어나 하루빨리 과거의 영화를 되찾았으면 하는 절절한 마음. "나기자 금호. 우리의 꿈, 우리의 미래."

광주시청앞 '익명 선별진료소' 찾은 시민 6명 확진

교회관련 2명, 감감미 감염 4명
셀트리온 치료제 허가심사 착수



29일 오전 광주시청 광장에 설치된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에서도 자발적으로 '익명 임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 중 일부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확진자 중 일부는 감염경로 조사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연말연시를 맞아 지역사회 곳곳에서 '집단 전파' 가능성이 우려된다.

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광주 시청 앞에 마련한 익명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시민 중 6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중 2명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정사교회 관련자고, 나머지 4명은 감염경로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모두 몸에 이상 증상을 느껴 스스로 익명이 보장되는 선별진료소를 찾았다고 한다. 지역사회에 숨어있는 확진자를 찾아낸 것은 다행이지만,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4명이나 돼 지역내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27일부터 설치된 익명 임시선별진료소엔 당일 354명이 찾아와 확진자 6명을 제외한 나머지 34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28일에 찾은 362명은 검사가 진행 중이다. 또 이날 오후 6시 기준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광주교도소 수용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3명이 추가되면서 광

주 누적확진자는 1067명으로 늘었다.

광주교도소 누적 확진자는 직원 4명, 수용자 21명, 가족·지인 6명 등 총 31명이다. 광주교도소에서는 지난 13일 수용자 6명이 확진됐으며 이들과 접촉한 수용자 494명이 2주간 1인실에 격리됐다.

한편 셀트리온은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항체치료제 '백키로나주'(성분명 레그단비맵, 코드명 CT-P59)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 허가당국도 40일 이내에 허가·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치료제 임상 1상에서 증상 회복에 걸린 시간을 위약군 대비 44% 단축하는 효과를 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정진 셀트

리온그룹 회장 역시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임상 시험에서 4~5일 이내에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당국과 업계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가 '대량 생산'에 용이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고 있다. 셀트리온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항체치료제는 '비싼 가격'이 단점으로 꼽힌다. 미국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릴리와 리제네론의 코로나19 항체치료제는 1회 투여량 가격이 100만원을 웃돈다. 셀트리온은 아직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의 공급가격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국내에서는 '원가' 수준에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

알립니다 '광일춘추' 새로운 필진 만나세요



김성호 박사 신계숙 교수 장석주 시인 홍형식 소장

광일춘추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광주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전국 7개 신문사 공동발행 '광일춘추'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역동하는 사회 현상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매주 금요일 게재되는 칼럼에는 김성호 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신계숙 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장석주 시인, 홍형식 한길서치 소장이사 새 필진으로 참여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 바랍니다.

- ◇ 김성호(대구파티마병원 신장내과 과장)
 - ▲ 경북대 의과대학·대학원 의학박사
 - ▲ 경북대병원 전공의, 신장내과 전임의 수료
- ◇ 신계숙(배화여대 전통조리과 교수)
 - ▲ 이화여대 대학원 식품학 박사
 - ▲ 저서 '역대로 본 중국 음식', '수원식단' (역) 등
- ◇ 장석주(시인·인문학자)
 - ▲ 동덕여대 문예창작과 강사
 - ▲ 시집 '햇빛사냥', 산문집 등 저서 다수
- ◇ 홍형식(한길서치 소장)
 - ▲ 고려대 대학원 사회학과 졸업
 - ▲ 통일희망열차국민운동 공동대표

光州日報社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중·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010-9576-8289
직통전화 **062)464-9706**

토지, 건물, 정원수(아파트용) 매매

1. 토지와 아파트용 정원수 포함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전 9,190㎡ 소나무 15년생 및 7중 2천여주 아파트 조경수 포함
광주 간 25분 신철 4차선 국도 근접. 전원주택, 펜션, 다목적 사용가
포장도로 접 ㎡ 7만원

2. 상가건물

(1) **광주. 북. 오치 4층** 대 384㎡ 연 998㎡ 사거리 코너 요지
매 16억8천만원 2억 월 6백6십만원

(2) **광주. 동. 총창로5가** 상업지역 대매상 주동로 5층 상가기
대 222㎡ 연 956㎡ 보 8천만원 월 4백만원 가

(3) **광주. 동. 대인동시장** 아시아주동로 코너 점포 8간
대 238㎡ 연 257.8㎡ 주변 아파트 9천여세대 건축 중
투자 효과 최상 매 9억9천보 1천6백 월 2백만원, 상업지역

3. 전원주택, 가든, 카페 등 용지

(1) **순창 금과 고례리** 광주 간 25분 담양 경계 계획관리지역
대지 1,163㎡(담 포함) 건물 66㎡ 벽돌조 스타브즈, 수리사용가
신아래 마을 뒷 야마산 바라본 정남 매 9천9백만원

(2) **담양 금성 덕성리** 광주 간 20분 메타가로수길 약 70m 접
계획관리지역 전 4,363㎡ (담 포함) 덕진산자락 정남 정원수 ㎡ 13만원

(3) **화순 북면 옥리** 금호호천 입구 도로접 계획관리지역
전 531㎡ 매 ㎡ 18만원

국민공인중개사 대표 정경기 ☎ **062-268-8289**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삼성홀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내

위해화장품 회수

「화장품법」 제5조의2에 따라 아래의 화장품을 회수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미엘 퓨어민트, 미엘클래식, 앙주르45몰티슈 앙주르 실키 몰티슈

나. 제조번호: 미엘퓨어민트(20.10.08.299.G1)
미엘클래식(20.10.06.599.G1)
앙주르45몰티슈(20.10.06.196.G1)
앙주르실키몰티슈(20.10.09.130.G1)

다.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병명 표기된 제조연월일을 포함한다): 1년

라. 회수 사유: 상기 제품(제조번호) 일부에서 미생물기준 한도 초과

마. 회수 방법: 방문택배

바. 회수 영업자: (주)지크린텍

사. 영업자 주소: 전남 화순군 동면 동농골길 102

자. 연락처: 061-373-5118

차. 그 밖의 사항: 위해화장품 회수 관련 협조 요청

1) 해당 회수화장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화장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0. 12. 29. 임시 주주총회에서 해산 결의 되었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1. 3. 5. 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만일 위 기일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0. 12. 30.
씨에스엠주식회사
순천시 해룡면 울촌산단5로 46
청산인 노윤호

산행안내

2021년 1월 1일(금)
▲광주4산악회 1월1일(금) 새해 햇맞이 간절꽃해돋이&신불산 칼바위산행, 연주체육관 02:00, 동아병원 02:05, 롯데백화점 02:10, 광주역 02:15, 문예후문 02:25, 비엔날레주차장 02:30 * 다음카페 광주4산악회 ☎ 010 7794 6920

신수발행공고

주식회사 나주호텔은 2020년 11월 09일 이사회에서 아래와 같이 신수발행할 결의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항에 의거 공고합니다.

1. 신수식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식 20,000주
2. 지급조건의 목적: 운영자금
3. 신수의 액면가액: 1주 금 1,000원
4. 신수의 발행가액: 1주 금 1,000원
5. 신수의 배정기간: 2021년 1월 14일
6. 신수의 청약일: 2021년 1월 29일
7. 주권의 담보: 2021년 2월 1일
8. 주권의 담보명: 주식회사 나주호텔
9. 신수의 인수 방법: 각 주주가 가진 주식수의 비율에 따라 신수식을 배정할 원칙으로 하되 주주의 인수 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수 포기한 주주는 일반인으로부터 공모하거나 다른 주주에게 이를 인수할 수 있다.
10. 기타 신수발행에 필요한 절차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2020년 12월 30일
주식회사 나주호텔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36, 401호(송월동)
대표이사 이강호

합병에 따른 채권자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지디그룹("갑")과 주식회사 풍성제과("을")는 2020년 12월 29일 개최한 각 임시 주주총회 결의로 "갑"은 "을"을 흡수합병하여 "을"의 권리와무를 승계하고 "갑"은 존속하며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 및 각 회사의 주권은 소지하고 계신 분께서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 및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0일
("갑") 주식회사 지디그룹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126길 23(논현동)
대표이사 황수원
("을") 주식회사 풍성제과
광주광역시 서구 마로로 8(마로동)
대표이사 문창

光州日報 kwangju.co.kr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227-9600**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220-0551**

光州日報

• 지국안내 •

북 구

- 동 광 226-1920
- 문 흥 266-1960
- 북광주 525-3761
- 신 안 222-8171
- 양 선 571-7658
- 오 치 266-7601
- 용 봉 433-1503
- 우 산 433-1503

동 구

- 남 광 675-5530
- 동 명 222-9054
- 동 부 225-6001
- 중 앙 222-9054
- 중 장 222-8171

남 구

- 남 부 675-5530
- 북 문 651-1833
- 봉 선 675-5530
- 송 하 675-6605
- 진 월 671-7276

서 구

- 광 천 382-5788
- 상 무 372-2353
- 서광주 369-1625
- 운 천 376-7153
- 치 평 376-6511
- 풍 안 603-0311
- 화 정 369-1625

광산구

- 윤 남 952-1687
- 별 국 959-1920
- 천 단 973-2900
- 하 남 955-0451
- 광 산 944-0444